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I)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은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든 매체는 편집을 하며 시청자는 편집 과정을 볼 수 없다. 내가 말한 것이 매체를 통해 걸리지면 의도와 상관 없이 완전히 엉뚱하게 읽힐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매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매체를 바로 보기 위해 중요한 것은 매체가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것도 의도적인 편집과 관련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기존의 다른 매체에 비해 정보의 전달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정보의 생산·복제·가공이 쉬워 인간의 삶에 전에 없던 편리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갖가지 부작용도 불러일으켰는데, 각종 동영상 유출 사건, 사생활 캐기 등의 문제가 그 예이다. 들머리 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오락화’ 현상은 인터넷 매체가 초래한 부작용의 전형이다.

들머리 사이트를 비롯한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엄청난 양의 뉴스와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소비된다. 게다가 소비되기도 전에 더 많은 양의 뉴스가 생산, 공급된다. 소비자들이 개별 뉴스를 읽는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에서의 뉴스 읽기는 ‘훑어보기’가 될 수밖에 없다.

사이비 정보와 뜬소문을 소재로 쓰는 ‘불량’ 뉴스들이 훑어보기의 허점을 파고든다. 정보의 오락화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인터넷 정보는 점점 더 자극적으로 되고, 정보의 오락화는 당연한 것이 된다. 각종 추문이 이름만 바꾼 채 끊임없이 나타난다. 정보의 소비 속도가 모든 것을 압도하면 필연적으로 책임 의식의 결여를 낳는다.

* 들머리 사이트: 누리꾼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거쳐 가는 사이트. ‘포털 사이트’의 순화어.

[나]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려면 기사를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는 말이 있다. 조금도 주관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사를 써야만 정확한 보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주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확하고 올바른 보도일수록 객관적이기보다 오히려 훌륭한 의미에서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사태를 정확하게 알리는 보도일수록 주관적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도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신문이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이야기이다.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고, 역사적으로 새로운 가치의 편에서 봐야 하며, 무엇이 근거이고, 무엇이 조건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준칙을 강조하는 것은 기자들의 기사 작성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보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기사가 보도되게 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으므로 진실 보도는 일반적으로 수난의 길을 걷게 마련이다. 양심적이고자 하는 언론인이 때로 형극의 길과 고독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 매일 온라인상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생성되고 검색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메모리에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다. 덕분에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지만, 개인적인 비밀은 없어지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잊힐 권리’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개인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잊힐 권리’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보가 잘못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정보에 대해 일정 부분 또는 전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잊힐 권리’는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다른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어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유럽과 달리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미국은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1970년대 말을 포함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소통의 방식이었다. 물론 전화가 있었지만 편지라는 보다 사적이고 은밀한 고백의 형식을 통해서만 비로소 교감이 가능한 영역이 존재했었다. 당시 나는 많은 문우(文友)들과 편지를 주고받았고 나 역시 그 편지들을 지극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필립 브르통은 인터넷에 대한 열광이 일종의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경고한다.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인간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장치에 흡수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대한 일방적 신뢰와 일상적 사용이 어찌면 도구가 주체가 되는 현상을 불러올지 모른다. 그것이 없으면 더는 삶을 지속할 수 없는 현실 말이다. 저장 용량이 부족해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하는 방식으로는 알다시피 그 어떤 소통의 기록도 유사(遺事)도 신화도 남지 않는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남김으로써 자기 존재를 증명한다.

[마] 21세기의 문이 열리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에 물밀 듯 쏟아져 들어온 삶의 변화를 하나 든다면 그것은 ‘안티’라는 말로 대표되는 경향일 것이다. 안티 문화의 대부분이 주로 인터넷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21세기적이다. 안티는 ‘무엇에 맞서다.’라는 뜻을 기본으로 하며, 반대, 적대, 대항 등의 뜻을 품고 있다. 그래서 홀로는 존재할 수 없고 항상 상대를 필요로 한다. 글자로서도 상대와 연결되는 끈이 필요해 단독으로 표기할 때는 붙임표를 써서 ‘anti-’라고 쓴다. 지속적으로 상대를 필요로 하는 태도, 그것이 안티의 태생적 조건이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를 없애 버릴 듯이 안티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살펴보게 된다.

상대방을 비판할 때에도 아주 지독하게 면박을 주거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폭력적인 글을 써서 도저히 얼굴을 들고 일어설 수 없게 하지는 않았는지, 사이버 공간에서도 반대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의 의견을 없애 버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논쟁이 아니라, 피 튀기는 전쟁을 하겠다는 식으로 안티 운동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제대로 된 신나는 안티 문화는 ‘잘사는 세상’을 위해 제기되는 다양한 주장들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통로이다. 그러려면 안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하고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를 적이라고 해도 ‘사랑스러운 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략적으로 ‘알미운 친구’로 대하기도 하는 능숙함과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나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안티는 단절이 아니라 능숙한 ‘사회관계’를 위한 시도이며, 앙심을 품고 증오를 폭발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성숙한 ‘문화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바] 몇 해 전에 나는 애리조나 주 투손 시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다. 천막 안에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던 나는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 앉자마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비쳤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허리를 꼴꼴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천막 안이 어슴푸레해서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천막마다 그런 식이었다. 처음에 나는 아마도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라코타 족 인디언은 말한다. “침묵은 라코타 족에게 의미 깊은 것이었다. 라코타 족은 대화를 시작함에 있어서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았다.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사] 사람은 모름지기 말을 신중히 해야 한다. 사람의 과실은 흔히 언어에서 나오니 말은 반드시 정성스럽고 믿음직하게 해야 하며, 시기에 적절해야 한다. 대답은 가벼이 하지 말아야 하고, 목소리와 기운을 정숙하게 하며, 농담은 삼가고,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야 한다. 오직 문장에 유익하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황당하거나 잡스러우며 괴이한 귀신 얘기 및 거리의 비루한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한다. 같은 또래들과 어울려 헛된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거나, 시정(時政)을 함부로 논하면서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것은 모두 공부를 방해하고 일을 해치니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1 제시문 [가] ~ [라]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제시문 [가]와 [나]의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시오. [20점]
- (2) 제시문 [다]와 [라]에 나타난 디지털 시대의 개인 기록에 관한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0점]

2 제시문 [마]와 [바]의 소통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고, [사]의 입장에서 각각의 견해를 비판하시오. [30점]

3 다음 글을 읽고 <보기>를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A와 B는 E국에서 생산되는 두 종류의 자동차이다. 친환경 자동차인 A는 환경 오염을 전혀 유발하지 않는 반면, 일반 자동차인 B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며, B가 유발하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 E국 국민들이 입는 다양한 피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한 대당 10원이라고 가정하자. E국 정부의 아무런 개입 없이 시장 원리에 따라 형성된 균형에서 A는 한 대당 200원에 100대가 거래되며, B는 한 대당 100원에 200대가 거래된다. 이때 발생하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액은 2,000원이다. (B 거래량 200대 × B 한 대당 환경 오염 비용 10원) 현재 E국 정부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으며, 환경 오염의 피해를 겪는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들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0이다.

(1) E국 정부가 자동차 B 한 대당 10원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새로운 균형에서 B의 가격은 110원이고 A의 가격은 변동 없이 200원으로 유지된다고 하자.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주체는 B를 공급하는 기업들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새로운 균형에서 A와 B의 수요량을 각각 구하고, 이때 발생하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액을 계산하시오. 그리고 E국 정부가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액 전부를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고 할 때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계산하시오. 답안 작성 시 풀이 과정을 적으시오. [20점]

<보기 1>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 수요의 교차 가격 탄력성은 한 상품의 수요량이 다른 상품의 가격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 B 수요의 가격 탄력성 = $-\frac{B \text{수요량의 변화율}(\%)}{B \text{가격의 변화율}(\%)} = 3$
- B 가격에 대한 A 수요의 교차 가격 탄력성 = $\frac{A \text{수요량의 변화율}(\%)}{B \text{가격의 변화율}(\%)} = 1$

(2) <보기 2>를 참고하여, 위 문항 (1)에서 본 세금 부과와 같은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징이 E국의 자동차 시장에 있는지 판단하고, 그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보기 2>

외부 효과, 공공재, 비대칭 정보 등이 존재할 경우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하여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생긴다. **외부 효과**란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피해나 이익을 주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가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경제**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만 보상을 하지 않는 **외부 불경제**로 나뉜다. **공공재**는 일단 생성되어 공급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무임승차자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비대칭 정보**란 시장 거래의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